

이-팔 전쟁 사망자 1만명 넘어...“가자지구는 어린이 묘지”

팔레스타인 민간인 중심 8800명 사망...이스라엘 사망자 1400명 “어린이도 3400명 이상 숨져”...가자 봉쇄로 인도주의 재앙 우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충돌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1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지난달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852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사망자가 주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같은 기간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124명으로 늘었다고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통신이 이날 현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를 인용해 전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인 희생자는 1400명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대한 응징으로 가자지구에 연일 무차별 폭격을 퍼붓고 지난달 27일부터는 지상전까지 개시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지속해 증가하면서 이번 무력 분쟁으로 인한 양측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에 따르면 31일에도 가자지구 북부에 위치한 자발리야 난민촌에 이스라엘군이 수천kg의 폭발물을 투하하면서 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엔은 특히 어린이 사망자 급증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대변인 제임스 엘더는 이날 “3천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고 이 수치는 매일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자지구가 수천 명 아이들의 묘지가 됐다”고 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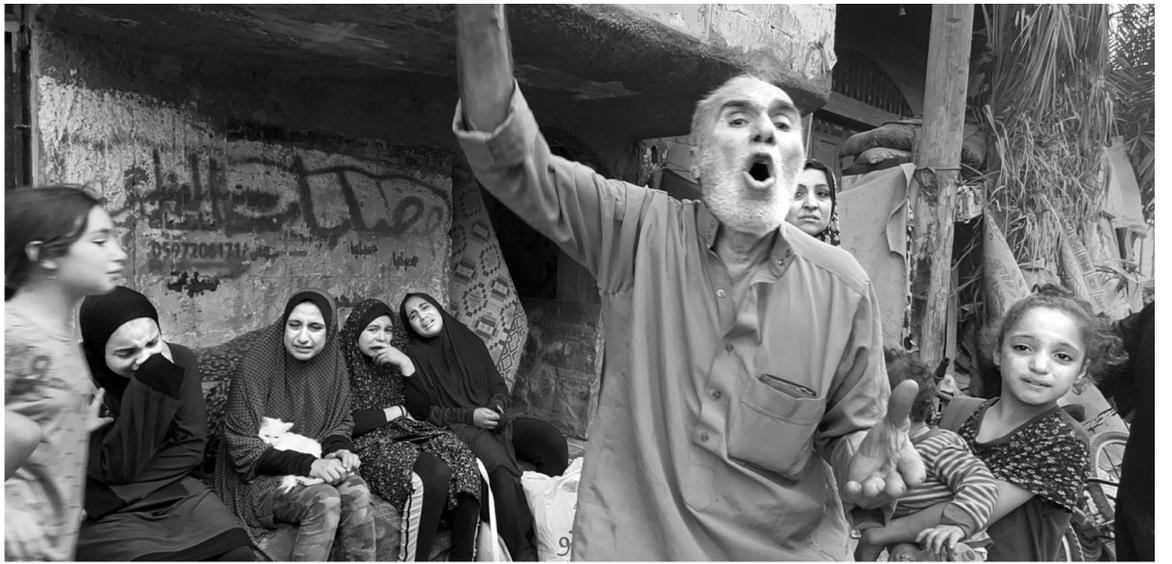
그는 또 가자지구 보건기관들의 통계를 인용해 940명의 어린이가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실종 어린이들은 폭격으로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로 인한 물자 고갈도 어린이 희생을 크게 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엘더 대변인은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강화되지 않으면 폭격으로 인한 사망은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물 생산 능력은 평소 일일 생산량의 5%에 불과하다”면서 “탈수로 인한 어린이 사망, 특히 유아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가자지구를 전면봉쇄하고 식량·연료·물·전력 공급을 완전히 차단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 21일에서 30일 사이 식량·물·의약품 등을 실은 트럭 143대가 이집트와 접경한 라파 국경을 통해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이 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주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측 사망자 수는 1만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은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인도주의 단체들은 지적한다.

유니세프는 즉각적인 인도주의 휴전을 통해 물·식량·연료·의약품 등을 포함한 구호물자가 가자지구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집권 통로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자국 어린이들도 하마스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사 메이라브 에일런 사하르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9개월 된 아이를 포함해 33명의 어린이를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지난달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끌고 간 240명 이상의 인질 가운데 30명이 넘는 어린이가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입국 문턱 높아...한국 찾는 태국 관광객 감소

3월 코로나 이전 80%대서

7·8월 50%대로 내려앉아

관광객 유치 경쟁 日 반사이익

동남아시아에서 방한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이자 한류 중심지인 태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발걸음이 줄고 있다.

사전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승인받지 못하거나, 도착 후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례가 늘자 다른 곳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는 분위기다.

최근 태국 소셜미디어(SNS)에는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연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한 태국인은 “급여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 이번 여행을 위해 5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적었다.

다른 사용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한국에 네 번이나 관광을 왔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질문을 받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지 매체 네이션은 지난 27일 ‘사랑에서 증오로? 태국인들이 한국에 등을 돌린 이유’라는 제목 기사에서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3만2천개로 태국 엑스(X·옛 트위터) 트랜드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일부 태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불법 입국하면서 문제가 악화됐다며 합법적으로 한국에 가려는 태국 관광객들이 대신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도 이번 논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고 방콕포스트가 1일 전했다.

세타 총리는 태국인이 한국에서 지속해 입국 거부되고 추방되는 문제에 대해 짜그라프 생마니 외교부 차관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태국에서는 K-팝과 K-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양국은 2023~2024년을 ‘한·태 상호방문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잡음’으로 태국인들의 한국 여행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3월 방한 태국인은 4만3084명으로 코로나 19 사태 이전인 2019년 3월과 비교해 81.1%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7월과 8월에는 50%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외국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일본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은 한국보다 태국 관광객을 1.78배 더 유치했으나, 6개월 만인 지난 5월에는 2.6배로 격차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바이든, 우크라이나 빠진 이스라엘 원조 하원 공화당 법안 거부키로”

1050억 달러 패키지 예산안 제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하원 공화당의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공화당 예산안에 대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우리 국가 안보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회의적인 하

원 공화당 의원들은 30일 이스라엘에만 무기 등을 지원하는 143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예산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국제적 지원 예산에서 총당하도록 하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원 143억 달러에 우크라이나 614억 달러(약 83조원), 팔레스타인 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및 파트너 지원, 국경 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 달러(약 142조원) 규

모의 안보 예산안을 지난 20일 의회에 제출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폭스뉴스에서 “우리는 금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별도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우크라이나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미치 매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국경 네 가지를 모두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부녀연합회에 출산 지원 정책 촉구

中 급격한 인구 감소에 위기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최대 여성단체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1일 중국 중앙TV(CCTV)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시 주석은 중화전국부녀연합회에 “출산 증진정책에 바탕을 두고 결혼·출산과 관련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중국 젊은이들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인식

은 물론 결혼관이 이전과 많이 달라져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중화전국부녀연합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시 주석은 2018년에도 이 단체에 “여성이 가족과 일 사이 관계를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의 이런 요구에는 여성이 사회적 역할보다는 전통적이고 가정적인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1949년 3월 여성 권리 향상을 위한 인민단체로 출범하였으며, 사실상

중국 정부 기관으로서 여성의 권리·지위·복지 증진 업무를 해왔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새 출산을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심각한 성비 불균형과 노동가능인구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 등을 제외한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제로 시행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공무원

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지난해 중국 신생아는 956만명으로 2016년(1867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